

어린이 책꽂이

▲가장 오래된 약속, 종교=인류의 역사와 함께 맥을 같이 해온 종교, 그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각 종교의 기원과 추구하는 정신, 의식, 문화 등 다양한 종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대교베를스만·1만원>

▲방과후 비밀수업=학교에 사는 쥐가 미술교사인 주인공에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기쁨과 우정, 슬픔과 절망 등 16편의 정겨운 에피소드가 실려있다. <대교베를스만·7천800원>

▲구석구석 놀라운 인체=인조인간과 몸이 뒤바뀐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모험을 통해 인체의 여러 장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 과학 학습서. 뼈와 근육, 피부, 감각, 심장, 소화과정, 배설기관 등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여정이 흥미롭다. <싱크하우스·9천500원>

▲상대적으로 특별한 아인슈타인=편법한 소녀 마리아가 시간여행을 통해 아인슈타인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눈다. 현재와 과거의 사진과 일러스트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림이 어린이들에게 그 시대와 인물을 생생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웅진주니어·9천원>

▲한족족=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의 비극을 지켜본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 홍씨가 쓴 자전소설이다. 역사적인 의미 뿐 아니라 아름답고 서정적인 문체가 돋보이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중소설이다. <한겨레 아이들·8천500원>

진귀한 사진·그림 함께보는 '상징'의 모든것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초상화 속 담비는 '정숙'의 상징이다. 담비는 털이 더럽히면 죽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담비털은 순결과 연결돼 있다.

상징 이야기 잭 트레시더 지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검은 고양이도 불길함의 상징이고, 흰색은 순수한 진리의 상징이다. '상징'은 문자보다 먼저 생겨났다. 오랜 세월 동안 조각과 그림, 부적, 의복에 새겨진 상징은 악을 쫓는 목적으로 쓰였고, 때론 사회를 통제하는 도구로도 쓰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깃발이나 휘장을 지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한다. 미술사가이자 상징 관련 전문 저자인 잭 트레시더가 펴낸 '상징 이야기'는 1천여개의 상징물을 종류별로 분석하고 유래를 설명하는 등 친절한 해설을 곁들인 책이다.

동식물·자연현상·인체부위 등

1천여개 상징물 종류별로 분석

저자는 '상징이란 음악이나 미술처럼 이성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적·정신적 속살을 비춰 보여주는 창'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형태를 얻은 정령'에서는 창조, 남녀의 원리, 물(머리카락·손·심장) 등과 관련된 상징을 통해 태초와 존재의 신비를 다룬다. 2부 '영혼·마음·초자연'에서는 천국, 지옥, 선과 악 등에 대한 상징을 다루고 '동물 세계' '식물의 왕국'에서는 다산(多産)을 의미하는 콩, 사랑을 상징하는 배, 태양의 힘을 상징하는 사자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식물들의 상징 체계를 살핀다. '예술과 예술작품들' '패턴과 무늬'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상징물들을 다룬다. 우리가 매일 보는 거울(진실성, 자기인식)의 상징이 깨지면 불운이 생긴다는 미신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쌍둥이 '영혼'을 담고 있다는 원시적 생각에서 연유한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고대의 상상은 사라졌고, 전통적인 상징은 때론 다른 뜻을 갖아입는다. '생명력' '재생' 등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던 스바스티카, 즉 불교의 만(卍)자의 의미는 20세기 군중심리의 달인인 아돌프 히틀러가 아리아인의 인종적 순수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잔인한 힘'의 정치적 상징으로 변화하였다.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국가에서 대지와 모성을 나타내는 검은색 역시 변화된 의미를 갖게 됐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라

회귀성의 법칙 등을 들고 있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어떻게 설득이 가능인지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항상 더 큰 것, 훌륭한 것, 더 좋은 것만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중에서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라는 내용의 구절이 있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는 것이므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에 얽혀 있다는 것이라는 예가 있다.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가르침을 법정 스님의 책을 통해 얻은 뒤 생활의 패턴을 바꾸어놓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항상 생각하고 행동이 다르며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에 생각이 골몰해 지던 차에 '설득의 심리학'을 읽게 됐다. 일상 속의 우리들은 직장에서, 이웃 간에, 친구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저자가 말한 법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당하기도 한다. 남을 설득하고 설득당하기보다는 설득의 심리학을 심분 적용해 서로 이해하며, 일상생활의 소중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려 노력한다. 벌써 하계휴가가 시작이 됐다. 평소 읽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책, 한두 권 정도를 배낭에 넣고 휴가를 떠나 한가로운 분위기에 책을 읽는 부모의 뒷모습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조영추 <광주시립무등도서관장>

여행 칼럼니스트가 쓴 '남미 방랑기'

1만 시간 동안의 남미 박민우 지음

패션잡지 '유행통신'에 15개월 동안 연재했던 여행 칼럼니스트 박민우씨의 글이 단행본으로 묶여 나왔다. '열정에 중독된 427일 동안의 남미 방랑기 시즌 ONE'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1만 시간 동안의 남미'는 저자가 지난 2005년부터 14개월 동안 남미를 여행하고 쓴 여행기이다. 이 책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 등을 다룬다. 짧은 여행가답게 문장이 거침없고, 통통 튀는다. 여행을 통해 사색을 갈고여겨나 구도(求道)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저자는 "단지 내가 가졌던 기쁨을 전해주고 싶을 뿐"이라며 출간의 변을 밝힌다. 누구나 짐을 싸는 여행의 계절, 꿈쩍없이 갈려 있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재치 만점의 남미 여행기로 대리만족을 느껴보길. 저자의 미니홈피(cyworld.nate.com/happyspaghetti)에 더 많은 정보가 있다. <클림북스·1만3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빈민 양산하는 현대 도시들 분석

슬럼, 지구를 뒤덮다 데이비스 지음

최근의 도시화 과정은 확실히 예전과 다르다. 도시화는 본래 산업화에 따른 고용 증대가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도시로, 도시로 밀려들고 도시는 점점 커져간다. 기형적 도시화는 도시 빈민의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역사학 교수 마이크 데이비스는 '슬럼, 지구를 뒤덮다'를 통해 전지구적 현상인 슬럼(街)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다룬다. 저자는 슬럼의 구체적 현황을 폭로하고, 그 안의 계층 구조와 역학관계를 분석한다. 또 정부의 방관이 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의 손에 온전히 내맡겨진 슬럼의 운명을 꼬집는다. 저자는 제3세계 도시계획이 일종의 계급투쟁이라며 "인간 연대의 미래는 도시 빈민이 전지구적 자본주의 내에서 최악의 밑바닥 위치를 전부터 거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경고한다. <돌베개·1만5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접수처를 안내하는 광고.

7·9급 공무원 대강. 「특보」세무직 율하반기 1,992명 대증원, 합격의 절호기. 7월 18일 주야반공. 무등고시학원. www.mdgoal.co.kr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8월 1일. 전담대 후론 부구청 건너편 234-0234

MODISH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쉬갤러리 Sale. www.modishgallery.co.kr. 30% 오페라 침실세트. 7월 18일 주야반공. 모디쉬갤러리 광주점